

烈不烈說話의 이념적 지향과 삶의 문제

민 찬

- | | |
|--------------------------|-------------------|
| I. 머리말 | III. 열(烈)의 이념적 지향 |
| II. 작품구조의 해명과 개별자료의 변이양상 | IV. 현실적 삶의 문제 |
| | V. 맺음말 |

1. 머리말

전래적인 민담의 형태 중에서 우리는 烈을 주제로 한 이야기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忠, 孝와 더불어 전통적인 덕목을 형성하면서 조선시대이래로는 가부장적 제반 질서를 지탱하는 윤리관의 핵심을 이루었던 烈에 대한 관심은 그것을 주제로 한 다양한 내용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민담은 그 구비적 속성으로 인해 민간의 저류에서 형성을 보았고 또한 유전되었기 때문에 烈을 주제로 한 전래적 이야기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烈을 대하는 민간의 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다.

張德順교수의 「說話의 樣式的 分類」에 의하면, 烈을 주제로 한 설화는 그 하위분류를 통하여 일곱 종류가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¹⁾ 그 중에는 물론 본고의 대상인 烈不烈說話도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烈을 주제로 한 설화의 대부분은 烈을 대하는 부녀자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한편으로는 烈이라 할 만한 부녀자의 행위를 포괄하는 규범성을 띠고 전승되어 온 것으로서 烈이라는 가치의 단조로운 면모만을 보여준다. 그러나 烈을 주제로 한 설화 가운데 특이한 이야기가 있다. 그것이 바로 본고의 논의대상으로 선택된, 烈不烈說話라고 지칭될 수 있는 몇 편의 이야기들이다.

孫晉泰교수가 '烈不烈女傳說'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한 鎭東 지방의 설화⁽²⁾

(1) 張德順, 『韓國說話文學研究』(서울大學校出版部, 1978), p. 28

(2) 孫晉泰, 『韓國民族說話의 研究』(乙酉文化社, 1947), pp. 60~65 수록.

를 두고 張德順교수는 ‘烈女는 不事二夫가 상식인데 이 美婦는 <事二夫>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그것과 유사한 내용, 그리고 주제, 의미상 연관을 보여주는 새로운 자료인 嶺東 지방의 설화 한편을 추가로 소개하고 있다. (3) 나아가 張德順교수는 이들을 통틀어 ‘烈不烈說話’로 지칭하고 있다. (4)

설화의 구조와 의미상 烈不烈說話는 烈을 주제로 한 일반적인 설화가 지니는 단조로움에서 한결 벗어나 있다. 烈不烈說話는 烈과 不烈이라는 대립적인 가치가 일으키는 현실에서의 질곡 속에 한 여인이 처해 있어 작품구조상의 복합상을 드러내며, 烈과 不烈의 행위가 상호작용함으로써 설화의 의미와 비장의 미학을 만들어내고 있다. 烈不烈說話의 주인공이라 할 만한 여인은 ‘改嫁烈女’, 혹은 ‘二夫烈女’로 지칭된다. (5) 改嫁와 烈女の 의미상 불일치, 二夫와 烈女の 의미상 불일치가 改嫁烈女, 二夫烈女라는 복합어휘로 합쳐질 때 각각의 어휘가 지니고 있던 본래적 의미가 어떤 변모를 일으키면서 하나의 어휘에 포함되는지, 나아가 두 개의 이질적인 개념을 받아들인 ‘改嫁烈女’, ‘二夫烈女’가 갖게 되는 새로운 개념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烈不烈說話에 대하여 관심을 모우도록 하는 직접적인 동기로 작용했다.

구조주의적 방법에 의한 설화연구가 그동안 설화의 내적 구조와 의미에 대한 해명을 그 속성적 차원에서 이루어 놓은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그러나 내적 구조에 대한 집착이 지나친 나머지 설화를 하나의 객관적 대상으로 바라봄으로써 그것을 인간과 세계에 각각 유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폐단을 보완하고자 개별 자료의 독자성을 중시하여 다양한 변이형 속에서 설화수용자의 관심의 맥락을 짚어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구연상황을 문제삼는 현장론적 연구방법이 모색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설화는 객관적 대상물로서가 아닌, 변모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유기체로서 인식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최근의 설화연구에 있어서는 개별 자료와 자료사이의 변별성, 나아가 변별성에 의해 일어나는 다양한 변이양상에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으며 거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내

(3) 張德順, 앞의 책 pp.131~135 수록.

(4) 위의 책 같은 곳.

(5) 『韓國口碑文學大系』에 수록된 설화의 題名을 참고할 만하다. 본고의 2.2. ‘개별자료의 변이양상’에 題名이 소개되어 있다.

고 있다.

그러나 구조주의적 방법은 그 폐단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설화연구의 유용한 방법이 되고 있음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현장론적 방법이 작품의 외재적 측면을 담당하고 있다면 구조주의적 방법은 그 내재적 측면을 담당하고 있어 두 방법의 상호보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설화의 실체를 규명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이루어질 수 있겠기 때문이다.⁽⁶⁾ 더구나 개별 자료의 다양한 변이나 수용자의 관심방향, 인식의 각도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싫든 좋든 개별 자료들을 망라하는 전형적 자료의 성격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⁷⁾ 이 점에 있어서 설화의 구조주의적 연구방법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 하겠다. 본고의 논의시각도 이에서 비롯된다. 취할 수 있는 자료를 전체적으로 개관하여 전형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예화를 선택한 다음, 예화를 중심으로 공동단락과 단락의 기능을 확인하여 그것이 개별 자료에서 어떤 양상을 일으키며 수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중시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烈不烈說話의 구조와 그 의미는 자연스럽게 도출되리라 기대된다.

논의대상자료는 『韓國口碑文學大系』에 수록된 이 방면 최근의 자료수집성과에 의존하였다.⁽⁸⁾ 설화연구가 이야기 자체로서만 국한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채록시기와 지역, 구연자의 면면, 청중의 반응과 참여 등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는 『韓國口碑文學大系』는 이 방면 연구를 위한 팔목할 만한 자료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6) 趙東一, 『人物傳說의 意味와 機能』(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79) p. 17 참조. 趙東一교수는 두 가지 방식의 절충으로 현장론적 구조분석을 제창하고 있다.

(7) 徐大錫, 「說話<중소리>의 構造와 意味」, 『韓國文化』 8 (서울大學校 韓國文化研究所, 1987), p. 20 참조. 徐大錫교수는 어느 하나의 각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지니게 될 위험에 대해 지적하면서, 각편의 대비를 통한 공유단락의 추출로 표준형을 재구함으로써 이같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언급한다.

(8) 『韓國口碑文學大系』 간행 이전에 학계에 보고된 한정된 지역내에서의 조사 성과를 살펴보기도 했지만 烈不烈說話의 범주에 들 만한 자료는 찾아지지 않았다.

2. 작품구조의 해명과 개별 자료의 변이양상

1. 작품구조의 해명

『韓國口碑文學大系』에 수록된 그동안의 조사성과를 폭넓게 수용한 결과, 烈不烈說話는 대체로 네 가지의 기본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이 확인된다. 내용이 비교적 충실한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네 개의 예화를 제시해 본다.

가) 한 남자가 친구 부인의 미모에 탐해 욕심을 두고 있다. 하루는 친구에게 나무 하러 가자고 피인 다음 산에서 낮으로 친구를 살해한다. 남자 혼자서 귀가하자 친구 부인이 남편의 행방을 묻는데 남자는 모른척 시치미를 떤다. 남자의 눈치가 다르자 부인은 남자의 비위를 맞추면 혹 방도가 있으리라 짐작하고 남자의 청에 응해 살림을 차린다. 애까지 생긴 어느 날, 남자가 비거품을 보고 혼자 웃자 부인이 이유를 추궁한다. 남자가 그제서야 실토하자 부인은 그 길로 남자를 죽이고 자결한다. (9)

나) 이씨가(李氏家) 문질(門疾)로 3대과부가 생겨 절손의 위기에 닥쳤다. 孫婦의 미모에 전라도 土班이 구혼하자 부인(孫婦)은 유복자를 몸에 지닌 채 개가한다. 부인은 유복자를 무사히 낳고 망아지를 장만하여 아들을 본가에 데려주도록 기원한다. 유복자는 공부를 마치고 과거급제를 이룬 다음 망아지의 인도로 본가에 들어간다. 부인은 본가 어른과 유복자를 만나게 해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자결한다. (10)

다) 남편이 나병에 걸리자 부부가 결식행각에 나선다. 남편을 구원하는 부인에게 부자가 첩으로 들일 것을 청한다. 부인은 남편의 병구완을 조건으로 하고 남편의 동의 아래 승낙한다. 부자와의 사이에서 아들 형제를 낳은 사이 남편이 병으로 끝내 죽는다. 부인은 목욕재계 후 남편이 묻힌 구덩이에 들어가 자결한다. (11)

라) 남편이 나병에 걸리자 부부가 결식행각에 나선다. 부인이 병구완으로 고생하자 남편이 몰래 떠난다. 부인은 주막집 첩이 되어 생활한다. 부인은 임신할 때마다 태아를 낙태시켜 그것으로 술을 담가 놓는다. 세월이 흘러 남편이 결식차 들르자 부부가 상봉한다. 그 때 부인이 담가 놓은 술을 먹여 남편을 완치시킨다. 부인은 주막집을 떠나 남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간다. 동네어귀에서 남편을 먼저 보내고 부인은 자결한다. (12)

(9) 『韓國口碑文學大系』 (이하 『大系』로 약칭함) 5-3, 부안읍 설화 24

(10) 『大系』 3-4, 영동읍 설화 31

(11) 『大系』 6-4, 월등면 설화 8

(12) 『大系』 8-1, 하청면 설화 17

예화 가)는 손진태교수가 수집한 嶺東설화와 동일한 내용이고 예화 다)는 장덕순교수가 수집한 嶺東설화와 동일한 내용이다. 한편 예화 다)와 라)는 남편이 나병에 걸려 부부가 결식행각을 한다는 배경과 사건을 서두에 제시하고 있어 둘 사이의 밀접한 관련을 우선 짚어낼 수 있다. 예화 나)는 『韓國口碑文學大系』를 검토한 결과 새로 입수하게 된 자료이다. 烈과 不烈의 문제가 남편에 국한되지 않고 가문의 차원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예화 나)는 독특함을 자아내고 있다. (13)

예화 가)와 다)는 이미 烈不烈說話로 소개되었기 때문에 본고의 논의대상으로 선택될 수 있겠으나 예화 나), 라)는 처음으로 소개하는 것이고 아울러 예화 가), 다)도 본격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선 烈不烈說話의 전반적인 성격을 위의 예화들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烈不烈說話는 여인의 행위가 烈과 不烈이라는 상반된 이념적 가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구조상으로나 의미상으로 커다란 특징을 지닌다. 여인이 烈이면서도 烈이 아닌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이든, 아니면 烈과 不烈의 행위를 동시에 저지르는 경우이든 烈不烈說話는 여인의 개가를 통하여 烈과 不烈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가치를 구현하게 된다. 따라서 ‘개가’라는 여인의 행위는 烈不烈說話의 가장 뚜렷한 핵심단락의 면모와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여인의 행위가 개가로 그치고 만다면 烈과 不烈의 상반된 가치가 일으키는 긴장은 나타나지 않는다. 不烈의 행위가 烈을 전제로 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여인이 남편을 위해 개가하였다는 타당한 이유가 전제되었다 하더라도 不烈이 烈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신의 행위를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 그 때 여인은 ‘자결’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여인의 자결은 마찬가지로 개가에 상응하는 핵심단락의 면모와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여인의 개가와 자결은 ‘改嫁烈女’라는 상반된 의미를 지닌 두 어휘가 합쳐진 복합어휘의 기본구조를 지탱해 주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네 개의 예화는 모두 여인의 개가와 여인의 자결이라는 핵심단락을 지니고 있다. 여인의 개가는 烈에서 不烈로 전환하는 과정으로서 烈

(13) 예화 나)를 烈不烈說話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밝혀질 것이지만, 설화의 구연자나 조사자들이 모두 다른 예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설화의 주인공을 改嫁烈女로 인식하고 있다.

의 훼손을 보여주고, 여인의 자결은 不烈에서 烈로 전환하는 과정으로서 烈의 구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써 烈不烈說話의 개념규정에 대한 기본구도는 마련된 셈이다.

논의의 폭을 좀 더 좁혀 개가와 자결을 전후한 사건의 제시, 전개 과정을 짚어보면, 여인의 개가와 자결을 전후하여 여인과 여인의 남편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을 떠올릴 수 있다. 문제제기부로서, 그리고 여인의 개가가 일어나도록 하는 동기부로서 설화의 첫머리에는 남편의 유고(有故)가 설정되어 있다. 남편의 유고는 예화에 따라 그 구체적 사건이 서로 다른데, 예화 가), 나)에서는 남편의 죽음으로, 예화 다), 라)에서는 남편의 병(病)으로 설정되어 있다. 예화 가)의 경우 여인의 미모 때문에 남편이 살해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예화 나), 다), 라)에서는 여인이 남편의 유고에 계기적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적어도 여인과는 무관한 채 남편의 유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것이나 다 남편의 유고에 따라 여인은 烈이라는 가치에 대한 관심의 한복판에 위치하게 된다.

남편의 유고와 여인의 개가를 거치면서 여인은 남편의 유고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 여인의 개가가 烈을 도의시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면 여인의 노력이 단락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수 없겠으나 개가가 '烈을 위한 不烈의 행위'이기 때문에 烈을 추구하는 여인의 노력은 문제제기에서부터 문제해결에 걸치는 중간단계로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여인의 노력을 통해 남편의 유고는 해소된다. 예화 나)의 경우 남편의 유고는 가문의 몰락으로, 남편의 유고해소는 가문의 회복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예화 다)의 경우 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병에서 완쾌되지 못한다. 이 점에서 예화 다)는 烈不烈說話 중 특이한 형태를 보여주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烈不烈說話가 될 수 없다는 준거로서 작용하지는 않는다. 개가와 자결의 의미단락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인의 노력이 남편의 유고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남편이 병으로 죽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편의 유고해소와는 같은 기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¹⁴⁾ 예화 가), 나), 다), 라)는 따라서 다음과 같은 5개의 단락을 기본적으로 共有하고 있

(14) 烈不烈說話의 주인공은 여인이다. 따라서 단락의 기능은 여인의 행위양상과 그 지향을 중심으로 살펴져야 할 것이다.

음이 확인된다.

- 단락 a) 남편의 유고
- 단락 b) 여인의 개가
- 단락 c) 여인의 노력
- 단락 d) 유고의 해소
- 단락 e) 여인의 자결

여인의 개가와 자결이라는 핵심단락에서 비롯하여 전후사건의 계기적 관련을 검토함으로써 추출된 5개 단락은 문제제기에서부터 문제해결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각각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단락의 기능은 두 가지 각도에서 살필 수 있다. 현상적 측면에서 볼 경우 여인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남편의 유고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될 것이고, 행위가 구현하는 가치의 개념적 측면에서 볼 경우 여인의 행위가 가치론적 차원에서 어떤 위치에 속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될 것이다. 예컨대 여인의 개가행위는 남편의 유고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럼으로써 烈이라는 가치의 훼손을 가져오게 된다. 여기에서 여인의 행위는 남편의 유고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烈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빚어 놓기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여인의 행위를 통해 볼 경우 5개의 단락은 현상적 측면과 거기에 가치개념을 도입할 경우, 두 개의 서로 다른 문제가 제기되고 해결되는 각각의 과정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다.

		현상적 차원	가치론적 차원
단락 a)	남편의 유고	문제의 제기	
단락 b)	여인의 개가	해결의 제기	문제의 제기
단락 c)	여인의 노력	해결의 과정	해결의 제기
단락 d)	유고의 해소	문제의 해결	해결의 과정
단락 e)	여인의 자결		문제의 해결

a) 남편의 유고가 일어남으로써 현상적 차원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 때 여인에게서 烈이라는 가치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b) 여인의 개가를 통하여 현상적 차원의 문제는 해결의 제기를 마련하는데, 새로이 烈이라는 가치가 문제로 제기됨으로써 두 개의 문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착종되는

심각한 상황에 빠져버린다. 烈과 不烈이라는 상반된 가치의 접합에 의해 이 부분은 설화의 핵심단락을 전고하게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c) 여인의 노력과 d) 유고의 해소에 이르기까지 두 개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맞물린다. 따라서 b) 여인의 개가의 연장선상에서 두 개의 문제는 심화되는데, 단락 d)를 정점으로 하여 不烈이라는 가치론적 차원의 문제만을 남겨 놓음으로써 다시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e) 여인의 자결은 현상적 차원의 문제가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치만이 온전히 남게 됨으로써 단락 a)와 단락 b), c), d)가 합쳐져서 제 3의 국면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¹⁵⁾ 두 개의 문제가 서로 맞물려 이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양상을 검토해 보아 알 수 있듯이 烈不烈說話에서 단락 b)와 단락 e)가 차지하는 비중은 막중한 것이다.

구조상의 기능은 필연적으로 의미상의 기능을 갖게 되는데, 이 때 단락 b)와 단락 e)는 각각 나름의 의미를 지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둘이 관련됨으로써 다양하고도 독특한 의미를 생성한다.

단락의 의미상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이미 추출된 두 개의 문제가 단락상 충돌을 일으키고 있으며 나아가 단락의 진행에 따라 충돌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인의 행위가 烈·不烈의 가치론적 물음을 제기하고 있음이 우선 고려될 수 있다. 그것은 곧 주인공의 윤리적 고뇌를 반영하는 것이다. 또 하나 b) 여인의 개가가 正道 아닌 權道로서 烈이라는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사실에서 당면한 삶이라는 현실적 의미가 깊숙히 개입함에 따라 가치론적 물음을 벗어난 보다 본질적인 물음을 충격적으로 던져준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겠다.⁽¹⁶⁾ 요컨대 烈不烈說話는 그 구조적 이중성만큼이나 의미상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당면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다.

2. 개별자료의 변이양상

네 개의 예화를 통해 확인된 烈不烈說話의 5개 단락과 단락의 기능이 『韓

(15) 단락 a), 단락 b)~c)~d), 단락 e) 등 3개의 국면으로 살펴볼 때 단락 e)는 제 3의 국면으로서 종합적 전환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烈不烈說話에서 느낄 수 있는 시적 감동은 여기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16) 烈을 주제로 한 일반적인 설화의 경우 삶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고 있다.

『國口碑文學大系』에 수록되어 있는 이 방면 자료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렴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논의에 앞서 예화 가)와 유형상 동질성을 보이는 자료를 <복수형>, (17) 나)의 경우를 <가문형>, 다)와 라)의 경우를 <구완형>으로 각각 지칭하기로 한다. (18)

(1) <복수형>—예화 가)의 경우

- 복수형 ① 대계 1—4, 진접면설화 38, 열불열녀(烈不烈女), 최유봉(남·81)
- 복수형 ② 대계 5—3, 부안읍설화 24, 이부열녀설화(二夫烈女說話) (1), 김판술(남·74)
- 복수형 ③ 대계 5—4, 군산시설화 2, 남편 원수 갚은 열녀, 정난수(남·69)
- 복수형 ④ 대계 8—3, 진주시설화 7, 열녀, 김두상(남·70)
- 복수형 ⑤ 韓國民族說話의 研究(孫晋泰), 烈不烈女傳說

단락 a) 남편의 유고

- 여인의 미모를 탐한 동리인에 의해 산에서 피살됨 : ①, ②, ③, ④, ⑤

단락 b) 여인의 개가

- 모종의 결심을 하고 개가함 : ②, ⑤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개가함 : ①, ③, ④

단락 c) 여인의 노력

- 비거품을 보고 동리인이 竊笑하자 여인이 추궁함으로써 남편의 살해사실이 밝혀짐 : ②, ③, ④, ⑤
- 동리인이 우연히 발설함으로써 남편의 살해사실이 밝혀짐 : ①

단락 d) 유고의 해소

- 여인이 동리인을 살해함 : ②, ③, ④
- 여인이 동리인을 고소함 : ①, ⑤

단락 e) 여인의 자결

- 남편 원수 갚은 후 자결함 : ②, ⑤ (①, ③, ④는 단락 e) 탈락)

핵심단락인 b), e)를 중심으로 5개 자료를 살펴보면 <복수형>은 자료 ②, ⑤와 자료 ①, ③, ④로 우선 구분된다. 자료 ②, ⑤는 개가에 대한 나름의 이유—모종의 결심—가 제시되어 있어, 그것이 烈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에 따라 여인의 생이 자결로까지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락

(17) 여인의 행위가 남편의 유고를 해소하는 방식을 고려하여 유형의 명칭을 삼는다.

(18) <구완형>의 경우 예화 다), 라)는 단락 d)의 차이로 인하여 구획되나, 현상적 차원, 가치론적 차원 공히 문제의 설정이 동일하므로 한 유형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둘 사이의 차이는 유형의 범주 내에서 살펴질 것이다.

b)와 e)의 존재와 그 기능이 확보되어 있다. 그에 반해 자료 ①, ③, ④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동리인의 접근에 따라 여인이 개가함으로써 단락 b)로서의 기능이 결여되어 있으며 더불어 단락 e)가 탈락되는 현상까지 일어난다. 더우기 자료 ①은 <복수형>의 모티프적 장치라 할 수 있는 물거품—피거품의 배열이 나타나지 않는다.⁽¹⁹⁾ 구연분량도 적을 뿐더러 ‘의정부 경찰서’ 등의 진술로 미루어 보아 기억력의 한계로 이야기의 구조와 내용이 많은 침식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복수형>은 烈不烈說話의 전형성을 갖추고 있는 자료 ②, ⑤가 본래적인 모습을 보다 많이 갖추고 있는 자료라 생각된다. 개가와 자결의 긴밀한 관련, 물거품과 피거품의 모티프적 배열 등이 어우러져 열불열설화의 면모를 구비하게 된 자료 ②, ⑤가 기억력의 한계로 인해 구조가 이완되면서 핵심단락인 b), c)의 탈락이 일어나고 나아가 자료 ①처럼 조잡한 이야기까지 생겨난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단락과 단락의 기능을 중심으로 고찰한 의도적인 선후관계이기는 하지만 그 역의 가능성은 엿보이지 않는다.

<복수형>의 전형적 자료로 떠오른 자료 ②와 ⑤는 단락 b) 여인의 개가가 실종된 남편의 행방에 대한 의문과 모종의 결심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단락 c) 여인의 노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락 b)를 중심으로 한 烈·不烈의 긴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 점은 단락 e) 여인의 자결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여인이 자결하는 근본적인 동기는 물론 烈·不烈의 가치론적 차원에서 해명될 성질의 것이지만 적어도 문면으로는 자료 ②의 경우 躡絶에 대한 죄책감보다는 전사(前事)에 대한 후회로서, 자료 ⑤의 경우는 자신의 미모가 두 남자를 죽이게 되었다는 회한으로 각각 제시되어 있다. 이처럼 자료 ②, ⑤가 <복수형>에서는 烈不烈說話의 전형적인 면모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烈·不烈의 긴장이 많이 이완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미 언급했듯이 단락 c) 여인의 노력이 우연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복수형>은 변이의 폭이 커질 가능성을 본래부터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19) 설화의 구연자는 이같은 특수한 모티프의 배열을 통하여 기억을 환기시킨다. 이로 볼 때 자료 ①은 본래 모습에서 많이 벗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2) 〈가문형〉—예화 나)의 경우

가문형 ① 대계 3—3, 가곡면 설화 26, 개가열녀(改嫁烈女) 광씨부인, 이만중(남·59)

가문형 ② 대계 3—4, 영동읍 설화 31, 시집 두 번 가서 열녀가 된 여자, 박종철(남·66)

가문형 ③ 대계 4—4, 웅천면 설화 22, 개가열녀(改嫁烈女), 김환기(남·80)

가문형 ④ 대계 6—4, 주암면 설화 25, 개가한 열녀, 조동윤(남·71)

단락 a) 남편의 유고

· 여인이 청상과부로 유복자를 잉태함 : ①, ②, ③, ④

단락 b) 여인의 개가

· 개가 요구에 승낙함 : ②

· 납치 당함 : ①, ③, ④

단락 c) 여인의 노력

· 유복자에게 과거공부 시킴 : ①, ②, ③, ④

단락 d) 유고의 해소

· 유복자가 급제 후 가문을 회복함 : ①, ②, ③, ④

단락 e) 여인의 자결

· 가문 회복 후 여인은 자결함 : ②, ③, ④

(①은 단락 e) 탈락)

자료 ①은 단락 e)의 여인의 자결이 탈락되어 있다. 아울러 단락 c)에서 자료 ③, ④처럼 망아지가 등장하고 있으나 망아지가 수행하는 역할이 제대로 제시되어 있지 못하는 불완전함을 노출시킨다.⁽²⁰⁾

자료 ②는 단락 b) 여인의 개가가 자의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단락 c) 여인의 노력도 일층 적극적으로 전개된다. 열과 불열의 긴장이 〈가문형〉 내에서 가장 고조되어 있다. 자료 ③, ④는 여인의 개가가 납치의 방식을 띠고 있어 단락 b)를 전후한 烈·不烈의 긴장은 그다지 일어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자결이 예외없이 수행되고 있어 烈에 대한 지향이 〈복수형〉을 훨씬 상회한다.

〈가문형〉은 남편의 유고가 가문의 유고—絶孫의 위기—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복수형〉이나 〈구완형〉 등의 여타 烈不烈說話와는 차이를 지닌

(20) 자료 ③, ④를 염두에 둘 때 망아지의 본래적 기능은 유복자를 본가로 데려가는 역할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료 ①에서는 그러한 기능이 탈락되고 단지 유복자를 태우고 길을 떠나는 평범한 망아지로 등장한다.

다. 남편에 국한된 열의 가치가 가문으로 확대됨으로써 가문에 대한 관심이 <가문형>에서는 집중적으로 노출된다. 여인, 혹은 유복자의 가문이 ○○氏家⁽²¹⁾로 분명히 제시되는가 하면 가문의 회복에 유복자의 과거급제를 설정함으로써 가문이나 烈 이념에 대한 관습적이고 제도적인 인식이 완고하게 작용하고 있다. 여인의 개가가 납치의 방식을 띠면서도 여인의 자결이 설정되어 있음은 이러한 사실에서 연유한 것으로 짐작된다.⁽²²⁾ <가문형>에 속한 자료는 구연의 분량이 다른 유형에 속한 자료보다 거의 두 배가 넘는다. 따라서 <가문형>에서는 구연자의 기억력이 완벽하게 재현되지 못함으로 인해 개별 모티프의 출입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²³⁾ 그러면서도 납치와 자결이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문형>의 烈에 대한 지향이 상대적으로 확고하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3) <구완형>—예화 다), 라)의 경우

- 구완형 ① 대계 5—3, 부안읍 설화 25, 이부열녀설화(二夫烈女說話) (2), 김판술 (남·74)
- 구완형 ② 대계 6—1, 의신면 설화 22, 남편의 나병을 고쳐주고 목 베어 죽은 열녀, 김통순(남·57)
- 구완형 ③ 대계 6—2, 엄다면 설화 44, 남편의 나병 고치고 자살한 열녀, 김정균 (남·88)
- 구완형 ④ 대계 6—4, 월등면 설화 8, 개가열녀, 장영훈(남·68)
- 구완형 ⑤ 대계 6—6, 임자면 설화 45, 이부열녀, 권석주(남·63)
- 구완형 ⑥ 대계 7—8, 사벌면 설화 11, 문둥이 신랑 섬긴 열녀, 김봉래(여·67)
- 구완형 ⑦ 대계 7—13, 대구시 설화 89, 남편 병 고친 열녀, 전계한(여·74)
- 구완형 ⑧ 대계 8—1, 하청면 설화 17, 개가열녀(改嫁烈女), 임봉진(남·61)
- 구완형 ⑨ 韓國說話文學의 研究(張德順), 烈不烈說話

단락 a) 남편의 유고

- 남편이 병에 걸려 부부가 유리결식함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단 ⑨는 나병이 아닌 폐병)

단락 b) 여인의 개가

- (21) 자료 ① : 현풍 관씨, 자료 ② : 이씨 家, 자료 ③ : 진주 소씨 소정승댁, 자료 ④ : 유부사댁
- (22) 자료 ①의 경우가 예외이나, 주 (20)을 참조할 때 자료 ①의 자결 탈락은 구연과정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생각된다.
- (23) 下門 樞손 : 자료 ②에서 탈락
 나무의 신통력 : 자료 ①, ②에서 탈락
 망아지 : 자료 ④에서 탈락

- 남편의 동의 아래 남편이 있는 상황에서 개가함 : ①, ④, ⑤, ⑨
- 남편이 떠난 상황에서 개가함 : ②, ⑥, ⑦, ⑧
- 남치 당함 : ③

단락 c) 여인의 노력

- 음식, 약으로 남편 병구완 : ①, ④, ⑤, ⑨
- 술을 담가 놓고 남편을 기다림 : ②, ③, ⑥, ⑦, ⑧
(단 자료 ⑦은 태아가 아닌, 雜草로 술을 담금)

단락 d) 유고의 해소

- 남편이 병에서 완쾌됨 : ①, ②, ③, ⑥, ⑦, ⑧
- 남편이 사망함 : ④, ⑤, ⑨

단락 e) 여인의 자결

- 남편을 살린 후 자결함 : ①, ②, ③, ⑥, ⑧
- 남편이 죽자 따라 자결함 : ④, ⑤, ⑨
(자료 ⑦은 단락 e) 탈락)

<구완형>은 烈不烈說話 자료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 그런 점에서 볼 때는 <구완형>이 烈不烈說話의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할 만하다. 烈을 주제로 한 일반적인 설화에서도 남편의 유고가 질병으로 제시된 경우가 빈번한 것처럼 烈不烈說話에서 <구완형>에 속한 자료가 많다는 사실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러나 <구완형>은 전항에서 제시된 예화를 통해서 이미 확인했듯이 두 개의 계열을 이루고 있다. 단락의 변이양상을 검토해 볼 때 예화 다)의 경우가 자료 ④, ⑤, ⑨로 나타나고 예화 라)의 경우가 자료 ②, ⑥, ⑧로 나타난다. 자료 ④, ⑤, ⑨는 남편이 있는 상황에서 남편의 동의를 얻은 다음 개가하는 과정을 설정함으로써 단락 b)를 전후하여 烈·不烈의 긴장을 만들어 내며 자료 ②, ⑥, ⑧은 남편을 완쾌시킨 다음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단락 e)를 통하여 그러한 긴장을 만들어 낸다. <구완형>의 나머지 자료인 ①, ③, ⑦도 두 계열로 일정하게 수렴되어 있다. 자료 ①은 단락 e)를 제외하고는 예화 다)의 계열과 같고 자료 ③은 단락 b)를 제외하고는 예화 라)의 계열에 수렴된다. 자료 ⑦은 예화 라)의 계열에 수렴되나 단락 e) 여인의 자결이 탈락되어 있을 따름이다.⁽²⁴⁾

(4) 기타 자료

(24) <구완형>의 경우 자료 ⑦에서만 나타나는 예외적 현상이다.

烈不烈說話로 규정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는 烈을 구현하면서도 烈不烈說話의 단락과 단락의 기능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자료들이 『韓國口碑文學大系』에는 수록되어 있다. 넓게 보아 烈不烈說話의 변이형으로 고려될 수 있기에 자료개관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자료 ① 대계 7-2, 의동면 설화 113, 남편의 문동병을 고친 열녀, 임찬희(여·75)

자료 ② 대계 8-6, 남하면 설화 37, 문동병 걸린 신랑 살린 김정승 딸, 장차연(여·61)

자료 ③ 대계 8-3 수곡면 설화 8, 재령 이씨 열녀, 하성근(남·70)

자료 ④ 대계 5-7, 용동면 설화 22, 이부열녀(二夫烈女), 김창기(남·68)

자료 ⑤ 대계 6-2, 엄다면 설화 43, 양반 아들과 백정 딸, 김정균(남·88)

자료 ①과 ②는 전연 동일한 이야기로 이미 추출한 烈不烈說話의 기본 단락에 따라 정리하면 <구완형>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락 a) 남편이 나병에 걸림

단락 b) 동네 총각이 음심을 품고 하룻밤을 청하자 여인이 승낙함

단락 c) 총각이 담을 넘는 사이 살해하여 그것으로 술을 담금

단락 d) 술을 먹고 남편이 완쾌됨

단락 e) 여인이 자결함

남편이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 남편이 사람으로 만든 술을 먹고 완쾌되었다는 사실로 하여금 <구완형>을 연상하게 하는데 단락 b) 여인의 개가가 완벽하게 설정되지 않는다는 점, 단락 e) 여인의 자결이 훼손에 그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무고한 총각을 살해한 죄책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등으로 차이가 난다. 여인의 개가가 미미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위의 자료가 <가문형>과 마찬가지로 '김정승 딸, 이정승 아들' 등으로 구체적인 신분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²⁵⁾ 따라서 단락 b)에서 완벽한 개가가 일어나지 않아 烈不烈說話의 면모를 온전하게 갖추지 못하는 것이다.

이같은 측면에서 자료 ③도 검토될 수 있다.

단락 a) 왜란 당시 남편이 왜군에게 잡힐 위험에 처함

단락 b) 여인이 왜군을 잡고 키쓰·포용함

(25) 이 점에 있어서 기타자료 ①, ②는 <가문형>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 단락 c) 남편이 그 사이 무사히 피신함
- 단락 d) 왜군이 떠나 남편이 위기에서 벗어남
- 단락 e) 여인이 이미 자결해 있음

烈을 주제로 한 일반적인 설화라고 평범하게 보아넘길 수도 있는 자료이지만 단락 b)와 c)에서 烈不烈說話로서의 면모가 드러나 있다. 여인의 신분이 '재령 李氏家'로 뚜렷이 제시되어 있음도 자료 ①, ②와 같은 양상을 보여준다.

자료 ④와 ⑤는 자료 ①, ②, ③과는 반대편에 위치한다. 단락 b) 여인의 개가가 뚜렷한 반면 단락 e) 여인의 자결이 탈락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자료 ⑤는 '양반 아들과 백정 딸', '내 북에 산다'형 민담, '무왕형 설화'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자료이나⁽²⁶⁾ 경우에 따라서는 改嫁烈女, 二夫烈女로 구연자들사이에서 인식되고 있음이 주목된다.⁽²⁷⁾

이상 예화와 개별자료를 제시하면서 烈不烈說話의 핵심단락, 각 유형의 변별성, 그리고 유형 내에서의 자료간 변이양상을 검토하였다. 산만한 자료들을 통일된 시각으로 살펴보기 위해 예화, 단락, 유형, 변이 등으로 일련의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설화의 전승형태나 방식, 그리고 전승기반으로서의 수용자층의 사고나 인식의 방향을 짚어보기 위해서는 전형적 자료보다는 변이형들에 보다 많은 관심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²⁸⁾

3. 열(烈)의 이념적 지향

전통적인 가부장제사회에서 忠·孝·烈은 국가, 사회,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는 윤리적 가치로서 존중되어 왔다. 조선시대 이래로는 유교의 실천적

(26) 崔雲植, 「꽃겨난 女人 發福說話考」 『韓國民俗學』 6 (民俗學會, 1971)
 林在海, 「武王型說話의 類型的 性格과 女性意識」 『女性問題研究』 第十輯(曉星女大 韓國女性問題研究所, 1981)
 김석배, 「〈내 북에 산다〉형 민담연구」 『文學과 言語』 第三輯 (文學과 言語 研究會, 1982) 참조.

(27) 『大系』 6-2, p.224

(28) 예화를 비롯한 전형적인 자료는 烈不烈說話 본래의 모습과 고유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유용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설화의 생동하는 면모를 다양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규범으로서 인식되었지만, 그러나 그 이전부터 忠·孝·烈은 인간이면 누구나 다 지켜야 할 당연한 도리로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윤리적 가치가 인간의 기본적 덕목으로 추앙되었기에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설화도 대량으로 형성, 전승되어 온 것이다. 주변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烈을 주제로 한 일반적인 설화도 이 부류에 속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烈不烈說話는 전통적인 윤리적 가치인 烈을 조건 없이 수용하거나 추앙, 구현하지는 않는다. 주인공의 행위가 일으키는 烈과 不烈의 긴장이 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주고 있다.

‘烈女不更二夫’로 표현되듯이 烈을 구현하는 부녀자의 덕목 중에서도 절개를 지키는 일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었다. 烈의 구현이라는 궁극의 가치와 그 전제로서의 절개라는 기본조건이 순탄치 않은 관련을 맺고 있을 때 烈이라는 가치는 절개라는 조건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인식될 수 있는가, 반대로 절개라는 조건이 烈이라는 가치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선부른 판단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해 烈不烈說話는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물음을 던지기도 하고 대답을 마련하기도 한다. 본 항목에서는 烈不烈說話의 세 가지 유형에서 파악되는 烈에 대한 지향을 유형간의 관련 아래에서 검토한 다음, 烈이 이념화되는 과정을 현실적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복수형〉의 경우, 두 남자—남편과 동리인—가 만드는 삼각관계는 잠재된 상태로 나타난다. 남편이 죽은 상태에서 여인의 개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세 사람의 관계는 남편이 살해되기 이전과 남편이 살해된 전모가 밝혀진 이후에만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단락 c) 여인의 노력은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우연적이다. 요컨대 烈에 대한 관심이나 지향이 현저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예화 가)에서 보이듯 여인의 개가는 남편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해명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²⁹⁾ 그러나 사건진행은 동리인의 유혹과 여인의 삶의 문제,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남녀의 자연스런 접근이 작용한 결과이다.

(29) ……여자가 보니까 남자가 허는 행동이 달브거든, “아 내가 이제 날에 와서 알아 볼래야 다시 알아 볼 것도 없고 (……) 자기 (저 앞집 남자)를 사귀면은 꼭 알 중절(방법)이 있을란지 알 수 없다.” 『大系』 5-3, p. 90

허고 그 남자허고 어찌고 어찌고 험개로 남자가 달라붙어가지고 그 여자허고 살게 되었어. 살어, 살음서 기탈없이 살어. 그런개로 아, 거기서 아기가 생겼단 말이야, 머시마가. (……) 그런개 그 전 남편 죽은 것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지내여이? (30)

烈을 전제로 하여 개가를 단행하였다 하더라도, 살면서 아이까지 낳고 남편의 죽음에 대한 일을 까마득히 잊고 지내는 대목에서 위의 자료는 적어도烈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배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단락 e) 여인의 자결을 두고 내리는 수용자의 평가에서도 드러난다.

안 죽었으면 이부열녀가 아닌디 죽어번겼음개 그렇지. 그런 여자는 무섭기가 한 정 없어. 그런개로 함부로 녀의 여자를 건들 것이 아닌디. 게 욕심을 채울라고 하면은 백만사가 살인자사여. 내 욕심이 나를 죽여. (31)

설화를 대하는 구연자의 시각은 여인보다는 여인에 의해 살해된 동리인에게 쏠려 있다. 구연자는 위의 설화를烈을 구연하는 한 여인의 애절한 이야기로서 보다는 욕심때문에 죽게 된 한 남자의 허망한 이야기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복수형 ⑤ 烈不烈女傳說의 경우 단락 e) 여인의 자결이 不烈에 대한 죄책감보다는 자신의 미모로 인해 두 남자를 죽이게 되었다는 회한에서 비롯되는 것도 <복수형>에 대한 수용자의 시각이烈의 문제를 비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서가 된다. <복수형> 설화에서 烈不烈說話의 전형적인 면모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 ②, ⑤ (부안읍 설화, 烈不烈女傳說)의 경우에서조차도烈에 대한 지향은 부분적으로 파악될 따름이다. <복수형>에 속하는 나머지 자료의 경우에는 단락 b) 여인의 개가가烈을 전제로 하지도 않을 뿐더러 단락 e) 여인의 자결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요컨대 <복수형>에서는烈에 대한 지향이 많은 쪽으로 희석화되어 개가가 현실적 삶의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烈·不烈이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 삶 자체가 우선적인 문제로 부각되어 있다. 그 결과 여인의 자결이 탈락되는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수용자들의 관심은烈·不烈의 긴장 속에 처한 여인의 고뇌를 부각시키는데 머무르지 않는다. 욕심이 이끌어 낸 허황한 남자의 이야기, 또는 한 여자의 회한한 복수극 정도로 그들은 인

(30) 위의 책 pp.90~91

(31) 위의 책 p.93

식하고 있을 따름이다. 여기서 烈은 상대적 명제로 자리한다.

〈가문형〉도 남편이 죽은 상태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음은 〈복수형〉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가문형〉에서는 남편이 아닌 유복자가 나타나 유복자와 後夫, 그리고 여인이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때 유복자의 존재는 가문의 유지라는 의미를 띠게 되는 것이다. 다른 유형과는 달리 남편이 아니라 가문으로 확대된 차원에서 여인의 관심과 행동이 전개된다는 데에 〈가문형〉이 지닌 특수성이 있다. 〈가문형〉이 가문을 우선적인 관심으로 제기하고 있음은 이야기 서두에 가문이 빠짐없이 설정되어 있음에서도 확인된다.

남편이 죽은 상황에서도 여인의 烈에 대한 집착은 대단하다. 납치를 당했으면서도 유복자의 안전을 위해 일정기간 자신의 下門을 불로 지저 육체적 관계를 거부한다. 단락 b) 여인의 개가를 납치의 결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이 부분은 단락 b)를 전후한 사건전개과정에서 여인의 烈에 대한 지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더우기 여인의 개가가 납치의 방식으로 처리되어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한채 이루어졌지만 여인의 자결은 능동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개가가 일어나는 상황이 불완전하면서도 자결이 완벽하게 수행되고 있음은 〈복수형〉과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가문형〉은 이러한 점에서 烈不烈說話 중 가장 뚜렷이 烈에 대한 지향을 보여준다. 남편의 부재, 자의와는 무관한 납치에 의한 개가, 자결의 수행 등의 일련의 사건전개는 烈 이념에 대한 확고부동한 집착을 보여주며 거기에 대한 어떠한 회의도 허용하지 않는다. 烈은 수행해야 할 절대적 명제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구완형〉에서는 두 남자와 여인이 만드는 삼각관계가 이야기 전편에 걸쳐 설정되어 있다. 그만큼 〈구완형〉에서는 烈·不烈이 일으키는 긴장의 폭이 확대된다. 남편이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개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문제는 심각성을 띠는 것이다. 〈구완형〉의 경우, 단락 b) 여인의 개가가 자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예화 다)처럼 남편의 병구완을 조건으로 세우면서 남편의 동의 아래 개가를 하든, 예화 라)처럼 남편이 떠나간 상황에서 당면한 삶의 문제로 인하여 개가를 하든, 어느 것이나 모두 자의적으로 개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도 〈구완형〉은 〈복수형〉과는 달리 烈을

전제로 한다. 단락 c) 여인의 노력이 남편을 완쾌시키려는 뚜렷한 목적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꾸준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형>에서는 여인의 노력이 구체적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구완형>에서는 여인의 관심이 남편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더우기 <구완형>의 경우 단락 e) 여인의 자결이 설정되어 있으며 <복수형>에서 나타나는 탈락현상은 예외적으로 보이고 있다. <구완형>에서 비로소 烈·不烈의 긴장이 극도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烈不烈說話에서 나타나는 여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락 b)	단락 c)	단락 e)
<복수형>	자의적 개가		不烈에 대한 죄책감 미미
<가문형>	타의적 개가	유복자 양육	不烈에 대한 죄책감
<구완형>	자의적 개가	남편 병구완	不烈에 대한 죄책감

<가문형>에서의 「타의적 개가—유복자 양육—不烈에 대한 죄책감에서 자결」이라는 일련의 과정은 烈不烈說話에서 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가문형>에서는 여인의 노력을 통하여 현상적 차원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다. 유복자가 성장하여 과거급제함으로써 絶孫의 위기까지 다다른 가문을 다시금 회복시켜 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자신에게 남겨진 윤리적 훼손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속죄하고 있는 것이다. 윤리적 훼손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어났고, 그러한 부자연스런 상황에서 유복자를 통해 가문을 유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는 목숨을 버려야 하는 막다른 지점까지 다다르게 되는 데에서 烈이 단순한 윤리적 가치의 차원을 벗어나 이념화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 점은 예화 라)로 대표되는 <구완형>에서도 보이고 있다. 남편이 떠나버린 상황에서 여인은 부잣집 후실이 되지만 아들을 낳아 달라는 주인의 요구를 목살한 채 낙태시킨 태아로 술을 담그면서까지 남편을 기다리고 남편을 구완하며, 결국에는 남편을 병고에서 해방시켜 줌으로써 현상적 차원의 문제는 해소되지만 자신에게 부과된 윤리적 훼손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 인간이 지닌 모성애적 본능까지 거부하면서 烈을 성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烈不烈說話의 이념적 지향이 어떤 정도인가

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32) 烈不烈說話의 방계자료로 제시된 기타자료 ①, ②에서는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이웃 총각을 유인하여 살해하기까지 한다. 충격적인 방법을 동원한 烈의 구현인 것이다. 다른 모든 가치를 거부한 상태에서 이룩하는 이와 같은 烈의 모습은 정상적인 인간행위의 소산이라고는 할 수 없다. (33)

4. 현실적 삶의 문제

烈不烈說話는 여인이 두 남자사이에 처한 상태에서 일으킨 사건을 담고 있다. 따라서 설화의 문맥은 이들 사건이 위주가 되며 연구의 시각도 세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짚어 그 안에 내재된 의미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설화가 지니는 모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烈不烈說話의 경우 적어도 사건 진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은 여인이며 두 남자는 사건의 배경이나 사건 진행의 계기만을 제공할 뿐 자신의 목소리나 그림자를 의도적으로 표출시키는 경우는 예외적인 몇가지 사례에 그칠 따름이다.

전항의 논의는 여인이 처한 두 개의 이질적인 문제—즉 현상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남편의 유고라는 문제, 그리고 가치론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여인의 훼손이라는 문제—와 그 진행과정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그것은 사실상 여인의 행위를 가지적인 측면에서 투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烈不烈說話가 담고 있는 의미는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남편의 유고와 여인의 훼손을 모두 포괄하는 당면한 삶의 현실적 문제가 개입해 있고 그 질곡에 처한 여인의 심리적 고뇌가 설화의 심층부에 자리하고 있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복수형>이나 <가문형>에서는 남편이 죽은 상태에서, <구완형>에서는 남편이 병고에 시달리거나 남편이 떠나버린 상태에서 스스로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꾸려야 할 절박한 상황이 전개된다. 남편의 유고를 해소해야 한다는 현상적 차원의 문제는 남편과의 관계를 문제삼지 않는다면 곧바로 여인에게 떨어진 당면한 삶의 현실적 문제가 되는 것이다.

(32) 埋兒나 童子蓼형 효행담에서도 이와 유사한 양상이 나타난다.

(33) <가문형>과 함께 살필 수 있는 것으로서, 烈의 이념적 지향은 가문이 제시되어 있는 사실과 서로 관련되어 있다.

아, 서방님이 있어도 밥을 굶는다 서방님이 없으니까 굶을 건 사실아녀요.⁽³⁴⁾

자 우리가 이것이 일년 이태 아니고 이렇게 갖다가 부락부락이 댕김서 얻어 묵고 요지경을 허니 이도 못헐 일이요. 그러니 이 동네 아무 양반이 아들이 없대. 그래 갖고 나허고 같이 살면은 당신을 움막을 쳐서 방 따서게 해주고 밥을 준다고 허니 당신 생객(생각)이 어찌요?⁽³⁵⁾

위의 인용문처럼 당면한 삶의 현실적 문제가 직설적으로 노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烈不烈說話 대다수 자료에서는 그같은 문제가 이면에 숨어 있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그러나 전후문맥을 통하거나 두 개의 문제를 관련시켜 볼 때 여인에게는 삶의 문제가 어쩔 수 없이 해결해야 될 부담으로 남게 된다. 烈의 이념적 지향이 가장 뚜렷한 <가문형>에서조차도 삶의 문제는 측면적으로나마 제시되어 있다.

참 이거를 나서부텀 맥여서 키워서 가르쳐 준 은혜야 참 태산이요.⁽³⁶⁾

그러나 삶의 문제에 대한 관심은 <복수형>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복수형>에서는 윤리의 문제보다 삶의 문제가 우선한다. <복수형> 5개 자료 가운데 3개 자료에서 단락 e) 여인의 자결이 탈락되어 있다는 점, 나머지 2개 자료에서도 여인의 자결이유가 자신의 훼손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회한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복수형>에서는 윤리의 문제가 그다지 비중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개가를 단행하면서 여인이 심리적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삶의 문제와 윤리의 문제가 정반대의 방향에서 제기되고 해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편의 죽음이나 병으로 인하여 여인이 스스로 생계를 지탱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가를 통한 의식주의 해결은 구체적인 상황들이야 어떻든 현실생활수준의 상승을 일으킨다. 그러나 현실생활수준의 상승은 반대로 윤리적 훼손을 수반하는 바, 여인은 사회적 지탄과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 하고 있는 일과 하여야 할 일이 반대쪽에서 대칭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여인은 자결함으로써 현실생활의 마감, 즉 삶의 無化를 초래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없이 고귀한 烈의 구현을 이룩해 놓는다. 개가와는 정

(34) 『大系』 5-4, p. 28

(35) 『大系』 6-4, p. 890

(36) 『大系』 3-4 p. 173

반대로 두 개의 문제는 상호 대칭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 관계와 관계가 보여주는 대칭의 모습이 결국 烈·不烈의 긴장인 셈이다.

烈과 不烈이 일으키는 긴장의 틈바구니에서 여인은 인간미가 표백된 윤리의 화신으로서 나타나지만, 현실과 윤리가 일으키는 대칭적 관계 속에서 여인은 다시금 인간미 넘치는 소박한 모습으로 되돌아와 윤리와 삶의 궁극적 의미가 무엇인지, 둘 사이의 충돌에서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하는 본질적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烈不烈說話의 세 유형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

* <복수형>에서는 당면한 삶의 현실적 문제가 우선한다. 여인의 개가도 살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여인의 자결도 필연적으로 수행되지 않는다고 있다. 여인은 烈과 不烈의 틈바구니에서 적극적인 고민을 드러내지 않으며 자신의 휘절을 문제삼지도 않는다. 이 경우 烈은 구현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상대적 명제일 따름이다. <가문형>에서는 윤리의 문제가 우선한다. 이야기 서두에 제시된 가문의 존재는 삶의 문제가 절박하지 않다는 점을 암시한다. 때문에 개가는 납치의 방식을 띠고 있고 개가한 상황에서도 여인은 烈의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 자신의 휘절이 타의적으로 일어난 결과이지만 그 책임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수용한다. <가문형>에서는 삶의 문제가 절박하지 않다.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에서는 윤리의 문제가 우선적이며 따라서 烈의 구현이 절대적 명제로 드러나는 것이다.

<구완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선명하게 제시하지 않는다. 烈의 구현은 절대적 명제일 수도 상대적 명제일 수도 없다. 당면한 삶의 현실적 문제가 우선인지 윤리의 문제가 우선인지, 여인은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난 다음 혹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난 다음 자결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충격적으로 제시하고 마는 것이다. <구완형>에서는 삶과 도리가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다. 烈不烈說話의 본래적 의미가 烈·不烈의 긴장, 현실적 삶과 윤리적 도리의 갈등 등으로 규정될 수 있다면 <구완형>이 烈不烈說話의 본래적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형적인 모습에서 벗어난 烈不烈說話의 변이형들은 설화의 구조를 바꾸면서 이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노출시킨다. 가장 커다란 변화가 단락 e) 여인의 자결이 탈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인의 자결은 <복수형>에서

현저히 탈락하고 있다. 당면한 삶의 현실적 문제가 우선하고 있기에 그같은 현상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단락 e)의 탈락은 그러나 <복수형>에만 국한되지 않고 <구완형>, 심지어 烈이 절대적 명제로 작용하고 있는 <가문형>까지 이어진다. 晝절에 대한 자책으로 자결하고, 그럼으로써 열녀로서 인정되던 단계에서 자결을 이루지 않고도 열녀로서 인정되는 단계로의 변화과정에 烈·不烈의 의미가 현실적 가치의 이입에 따라 심각한 양상을 벗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7)

5. 맺 음 말

삶에 밀착된 다수의 존재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 전승되어온 설화는 어느 한 개인의 탁월한 상상력이 빚어낸 소산으로 볼 수는 없다. 익명의 다수가 형성, 전승에 참여함으로써 많은 변화를 거쳐 오늘의 면모를 구비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하나의 고유한 패턴을 고집하기도 한다. 그것은 설화의 세계가 공리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연유한다. 권선징악류의 교훈적 내용을 설화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설화가 지닌 공리주의적 속성에 다름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설화가 지닌 바 의미의 전부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설화에는 삶에 밀착된 다수의 존재와 다수의 행동에서 연유된 삶의 양상이 저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烈不烈說話의 경우 한 여인을 주인공으로 하여 烈이라는 윤리적 가치를 제고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당면한 삶의 현실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하고 있는 일과 하여야 할 일을 서로 일치시킬 수 없는 고통스런 상황에서 무엇을 선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나름의 대답을 마련하기도 하면서 烈不烈說話는 형성, 전승되어 온 것이다.

(37) 전형적인 자료라 할 수 있는 예화 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연자의 진술이 나온다.

“안 죽었으면 이부열녀가 아닌디 죽어번겼응개 그렇지” (『大系』 5-3, p. 90) 여인의 자결을 烈不烈說話에서 없어서는 안될 단락으로 구연자는 인식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단락 e)의 탈락은 烈不烈說話의 의미를 커다란 폭으로 변질시키는 결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烈不烈說話의 개념을 확인하는 데서부터 논의가 비롯되었다. 4개의 예화를 동원하여 烈不烈說話의 복합적인 구조를 유지하는 5개의 단락을 추출한 다음 개개 단락이 발현하는 기능을 현상적 차원에 가치론적 평가를 개입시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루어진 烈不烈說話에 대한 논의성과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1. 烈不烈說話의 이중적 구조는 5개의 단락이 현상적 측면, 가치론적 측면의 서로 다른 차원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에서부터 문제해결에 이르기까지 각각 상이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비롯되었고 그 때문에 구조상 단단함을 더 하고 있다.
2. 예화에서 추출한 5개 단락을 설화 각편에 대입시켜 본 결과, 烈不烈說話는 <복수형>, <가문형>, <구완형> 등 세 개의 유형으로 수렴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가문형>의 경우 당면한 삶의 현실적 문제보다는 烈이라는 가치가 우선하여 삶을 도외시한 가치의 추구에서 烈이 이념화되는 모습이 보여지며, <복수형>의 경우 烈이라는 가치는 상대적 명제일 뿐 오히려 삶의 문제가 폭넓게 부각되어 있다. 위의 두 유형은 삶과 윤리의 갈등에 대해 각각 나름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4. <구완형>은 烈·不烈이 일으키는 긴장, 그리고 삶과 윤리의 일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어느 쪽으로도 경사하지 못한 채 자결로 생을 마감함으로써 烈이라는 윤리적 가치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烈不烈說話의 본래적 의미에 가장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유형이다.

이상과 같이 대체적으로 요약된 본고의 논의성과는 사실상 烈不烈說話의 자료를 소개하고 피상적으로 검토한 수준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한다. <구완형>의 경우처럼 끝없이 제기하는 물음에 대해 필자는 아직 이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자료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烈不烈說話가 제기하는 이상의 물음은 현재도 끊임없이 형성되고 있는 烈不烈說話의 변이형 내지는 방계자료들을 폭넓게 검토하고 그것을 대하는 수용자들의 의식을 함께 살펴 보면 상당한 정도의 보완이 가능하리라 짐작

된다. (38)

한편 烈不烈說話는 현재도 끊임없이 전승, 변화하고 있지만 형성의 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前時代의 영역 속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보편적 가치로서의 烈이 삶과 결부됨으로써 치열한 충돌을 일으키는 현상은 현실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시대적 격변기에서 비롯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烈不烈說話는 上下主從의 신분적 예측에 기반한 강고한 실천윤리가 와해되기 시작하는 봉건주의 해체기로서의 조선후기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생각과 주장은 당대문헌인 邑誌나 野談類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된 烈行談내지 烈女에 대한 記事를 폭넓게 검토하고 비교하면서 역사사회적 문맥을 통한 烈不烈說話의 해명을 요구하는 바 본고는 우선 문제를 제기하고 후속작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마감하기로 한다.

(필자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38) 『大系』 6-3, 점안면 설화 22, 개가 열녀, 『大系』 5-7, 응동면 설화 22, 이 부열녀(二夫烈女) 등의 자료는 내용상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형성된 자료로 생각된다. 내용도 합리적이며 여인의 자결은 나타나지 않는다. 아울러 기타자료 ⑥으로 제시된 자료들도 烈不烈說話와 함께 다루어 보면 본고에서 의도한 바를 좀 더 폭넓게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